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2년 5월 생산은 전월대비 0.8% 증가(전년동월대비 7.1%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건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8% 증가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광공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7.1%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 반도체 등에서 줄었으나, 기계장비, 자동차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1% 증가함(전년동월대비 +7.8%).
- 서비스업 생산은 협회·수리·개인에서 줄었으나, 도소매, 운수·창고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1% 증가함(전년동월대비 +7.5%).

◆ 2022년 5월 소비는 전월대비 0.1%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3.0%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1.2%) 판매가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1.2%), 의약품 등 비내구재(-0.3%)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1% 감소함(전년동월대비 +0.7%).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1.9%) 및 항공기 등 운송장비(16.4%)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13.0% 증가함(전년동월대비 +5.1%).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5.9% 증가,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2.0% 증가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9	2020	2021	2020				2021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5월	4월p	5월p
생산	전산업	1.0	-1.1	4.9	-1.5	-2.9	2.9	1.3	1.7	0.6	0.9	1.5	0.2	-0.9(4.4)	0.8(7.1)
	광공업	0.4	-0.3	7.4	-0.5	-6.0	5.7	2.6	3.7	-0.6	1.0	1.1	-0.2	-3.3(3.5)	0.1(7.3)
	제조업	0.5	-0.2	7.6	-0.5	-6.4	6.2	2.5	3.9	-0.7	0.9	1.3	-0.4	-3.2(3.6)	0.1(7.8)
	건설업	-2.3	-2.1	-6.7	1.7	-2.3	-2.5	1.3	-5.2	-1.9	-1.1	4.1	-1.8	-0.1(-2.3)	5.9(8.2)
	서비스업	1.4	-2.0	4.4	-2.9	-1.5	2.2	0.9	0.6	1.7	1.1	1.5	-0.4	1.1(5.0)	1.1(7.5)
소비	소비재 판매	2.4	-0.2	5.9	-5.9	5.3	-0.4	1.1	1.7	2.2	0.8	1.1	-0.2	-0.2(0.4)	-0.1(0.7)
투자	설비투자	-5.6	5.9	9.6	-2.0	2.5	2.9	1.4	6.0	0.7	-0.8	-0.2	-1.2	-7.6(-12.1)	13.0(5.1)
물가		0.4	0.5	2.5	0.3	-0.5	0.6	0.0	1.3	0.5	0.7	1.0	0.0	0.7(5.4)	0.6(6.0)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1년 6월, 2022년 5월, 2022년 6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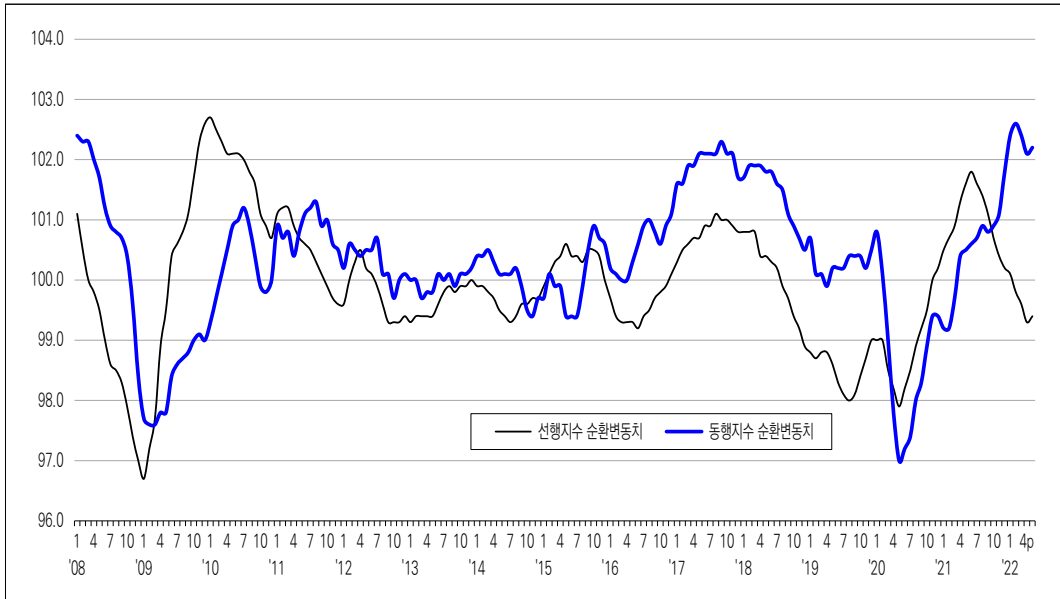
◆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6%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8% 상승)

-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전월대비 0.6% 상승함(전년동월대비 6.0%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교통(2.9%), 음식·숙박(0.8%), 주택·수도·전기·연료(0.3%), 기타 상품·서비스(0.8%), 오락·문화(0.5%), 교육(0.3%), 가정용품·가사서비스(0.3%), 보건(0.1%)은 상승, 의류·신발, 통신, 주류·담배는 변동 없으며, 식료품·비주류음료(-0.1%)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4% 상승,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1.0% 상승하여 전월대비 0.8% 상승함.

◆ 2022년 5월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2% 증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범,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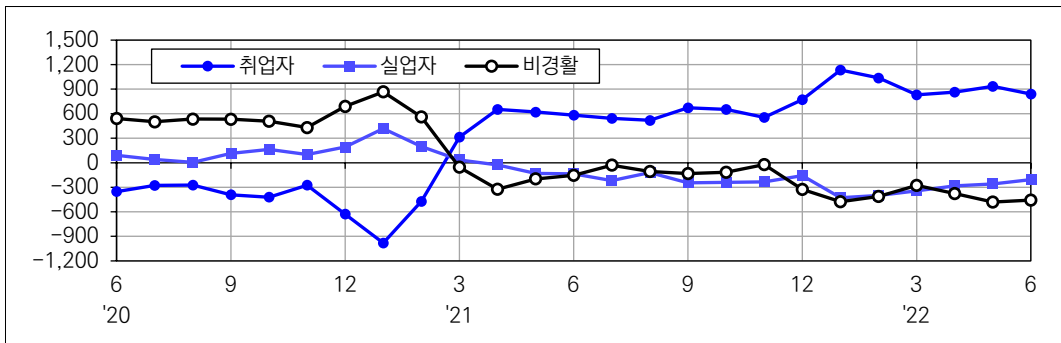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전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

○ 2022년 6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4만 1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전월대비¹⁾ 6만 9천 명 감소).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6월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되고 건설업은 증가폭이 축소됨. 서비스업은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금융보험 및 공공행정 등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됨.
-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6월은 20대와 40대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20대는 도소매, 정보통신, 공공행정에서 증가폭이 축소하고 40대는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에서 감소로 전환됨.
- (종사상 지위별) 6월은 전년동월대비 임시직이 감소로 전환됨. 임시직은 건설업 및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도소매,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및 공공행정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건설업에서 감소 전환됨.
- (일시휴직자) 6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9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5월 -2만 7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1만 7천 명 증가함.
- (실업자) 6월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20만 5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5월 -25만 9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2만 명 증가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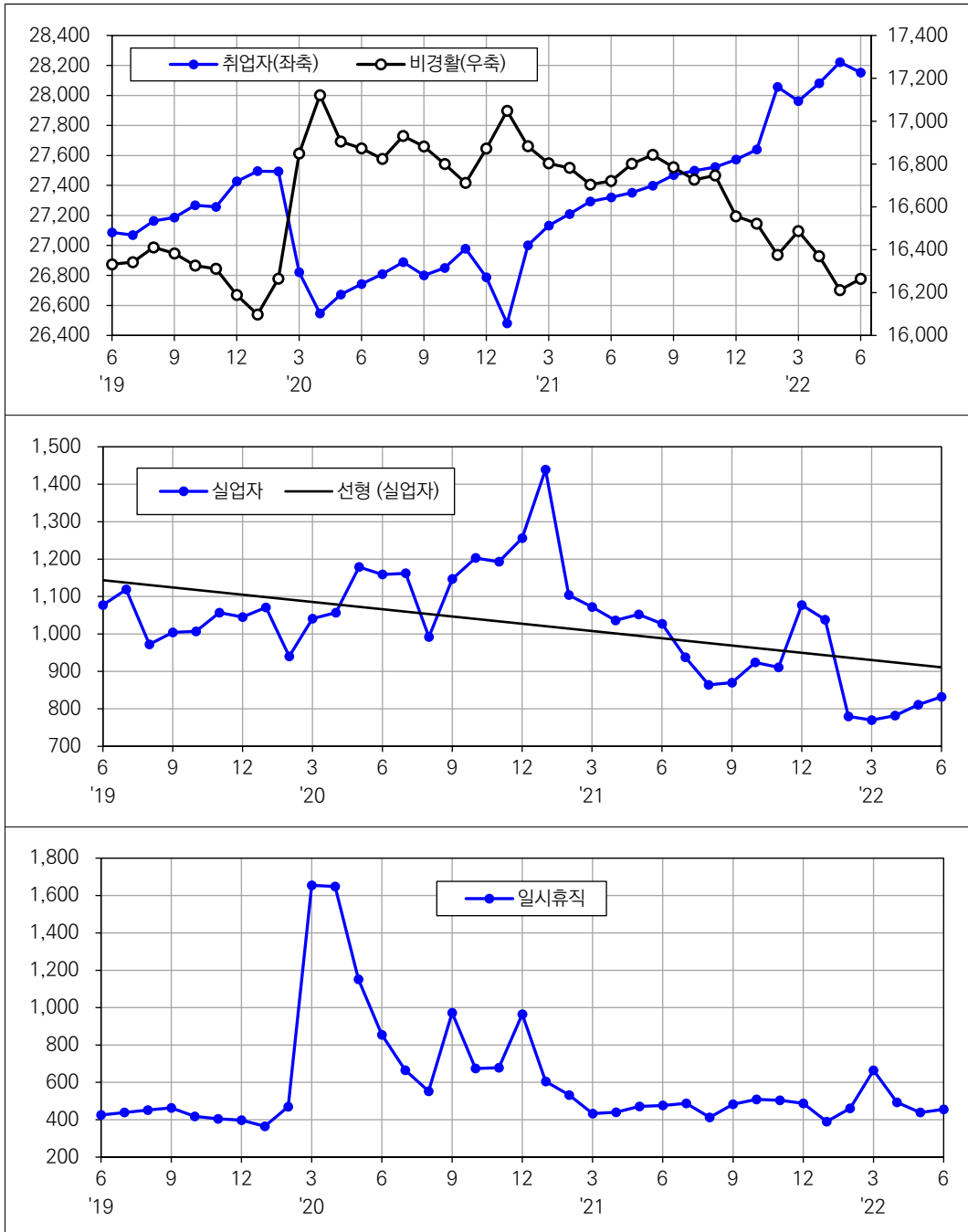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6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20대와 40대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전년동월대비 20대 취업자는 제조업에서 증가 전환하고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지만 도소매, 정보통신, 공공행정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전문과학기술에서 감소로 전환됨. 40대 취업자는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에서 감소로 전환하고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사업관리지원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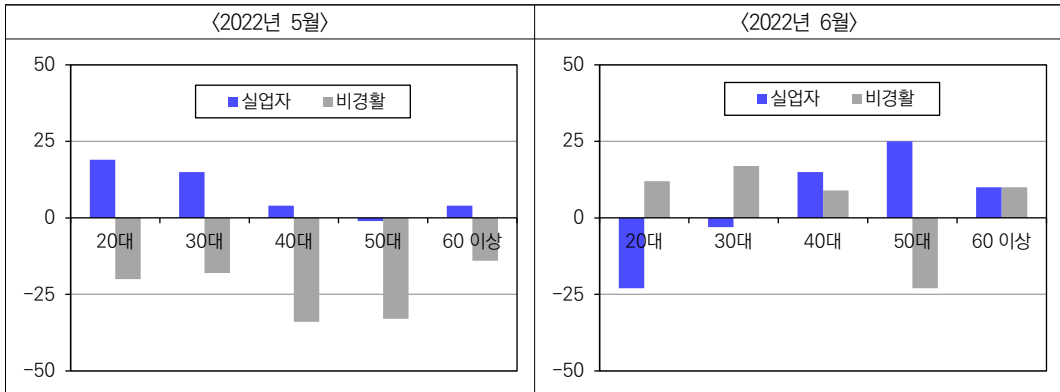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4월	5월	6월	(전월비)	4월	5월	6월	(전월비)	4월	5월	6월	(전월비)
취업자	-5	11	-12	(-24)	191	185	117	(-10)	33	6	18	(-26)
실업자	-3	-8	-14	(-6)	-100	-74	-72	(-23)	-33	-4	3	(-3)
비경황	-73	-78	-41	(23)	-207	-241	-193	(12)	-132	-132	-151	(17)
실업률	-1.3	-3.6	-5.8	(-2.1)	-2.6	-2.0	-1.8	(-0.5)	-0.6	-0.1	0.1	(0.0)
고용률	0.0	0.8	-0.3	(-1.1)	4.0	4.1	3.2	(0.1)	1.9	1.5	1.7	(-0.2)
	40대				50대				60세 이상			
	4월	5월	6월	(전월비)	4월	5월	6월	(전월비)	4월	5월	6월	(전월비)
취업자	15	36	2	(-30)	208	239	245	(1)	424	459	472	(25)
실업자	-35	-47	-21	(15)	-61	-75	-54	(25)	-51	-51	-48	(10)
비경황	-52	-60	-51	(9)	-108	-120	-142	(-23)	196	150	122	(10)
실업률	-0.5	-0.8	-0.3	(0.3)	-1.0	-1.2	-0.9	(0.4)	-1.1	-1.1	-0.9	(0.1)
고용률	0.8	1.2	0.7	(-0.3)	2.1	2.4	2.4	(0.0)	1.4	1.6	1.7	(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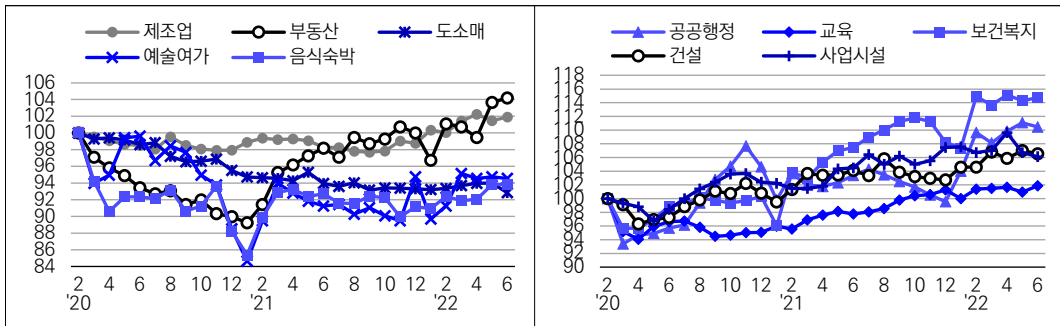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도소매, 공공행정, 건설, 사업시설이 감소함. 음식숙박 및 예술여가는 정체된 반면 부동산, 제조업, 보건복지, 교육은 개선됨.
- 도소매, 예술여가, 음식숙박은 2020년 2월 수준 이하를 유지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68	122	89	-3	35	-22	10	0.7
광업	0	-1	-2	0	-1	-2	-3	-25.0
제조업	132	107	158	36	-34	19	21	0.5
전기·가스·증기	12	11	9	3	2	-2	3	4.1
수도·원료재생	-11	-12	-25	-14	-1	-11	-26	-15.2
건설업	48	72	50	-19	23	-9	-5	-0.2
도매 및 소매업	-11	-45	-37	10	1	-41	-30	-0.9
운수 및 창고업	87	120	126	18	42	16	76	4.7
숙박 및 음식점업	-27	34	28	3	41	0	44	2.1
정보통신업	89	93	76	23	4	7	34	3.5
금융 및 보험업	-54	-39	-59	-22	12	-11	-21	-2.7
부동산업	19	35	33	-7	23	3	19	3.4
전문·과학·기술	50	69	41	-10	19	-2	7	0.6
사업시설관리지원	104	32	21	35	-39	-8	-12	-0.8
공공행정·사회보장	91	99	80	19	14	-7	26	2.1
교육서비스업	75	55	79	3	-13	17	7	0.4
보건 및 사회복지	230	178	177	35	-20	11	26	1.0
예술·스포츠·여가	9	16	16	-3	1	-1	-3	-0.6
협회·단체·수리·기타	-25	4	-16	-2	24	-17	5	0.5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18	-13	-2	-2	3	4	5	6.7
국제 및 외국기관	-2	-1	0	-3	1	0	-2	-12.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2년 6월은 전년동월대비 임시직이 감소로 전환됨.

- 상용직은 제조업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임시직은 건설업 및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도소매,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공공행정 등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교육서비스에서 증가 전환됨.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건설업에서 감소 전환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929	900	899	103	36	8	147	0.9
임시직	48	79	-53	-73	63	-66	-76	-1.6
일용직	-117	-91	-79	24	14	-28	10	0.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9	65	121	26	10	34	70	5.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0	45	6	0	43	-9	33	0.8
무급가족종사자	-53	-64	-53	-18	4	4	-10	-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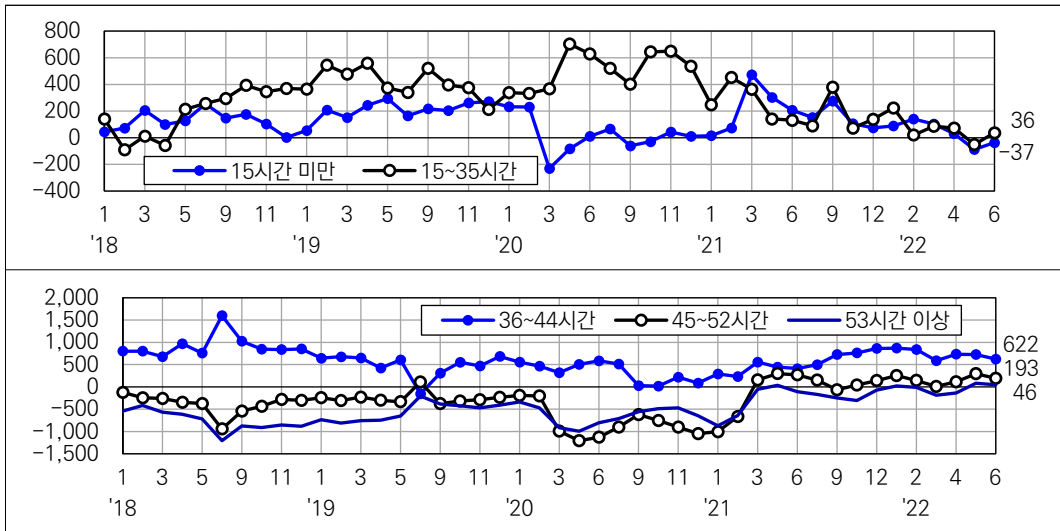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농림어업	1	8	0	0	14	14	-1	-2	-2	9	18	21	64	74	45
제조업	136	115	162	6	15	10	8	-2	-1	11	18	27	-20	-23	-26
건설업	96	105	87	25	20	7	-76	-61	-41	11	2	17	-3	16	-6
도소매	115	73	77	-49	-32	-57	-15	-16	-1	7	9	7	-35	-45	-34
운수창고	46	47	46	0	19	27	-9	-8	-9	1	8	13	47	55	49
음식숙박	4	48	44	15	21	2	-40	-28	-17	-24	-9	0	9	3	-9
정보통신	90	88	71	1	3	-2	0	-1	0	1	-1	1	-4	3	5
금융보험	-35	-35	-33	-4	0	-34	-2	0	2	-2	0	3	-10	-4	3
부동산	21	29	23	-3	8	7	-4	-2	-3	5	4	7	-2	-5	0
전문과학기술	93	87	67	-38	-25	-35	0	-1	-6	-1	3	8	-2	7	10
사업관리지원	40	10	7	25	12	9	30	4	-8	1	3	6	5	-1	2
공공행정	88	97	96	5	0	-14	-2	3	-2	0	0	0	0	0	0
교육서비스	63	52	65	9	-1	-2	3	2	1	-2	-1	9	-1	3	8
보건복지	145	138	152	75	32	25	-1	4	3	10	3	-3	2	4	3
예술스포츠	8	2	11	-14	-3	-8	-1	3	5	5	1	0	15	16	13
협회단체	23	42	46	5	1	0	-4	19	0	5	5	4	-42	-53	-57
가구 내 고용	0	-1	0	-19	-9	-4	0	-3	2	0	0	0	1	-1	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6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9.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1시간 증가함.
 - 36~44시간 근로자 비중은 증가하고 35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은 감소한 영향임.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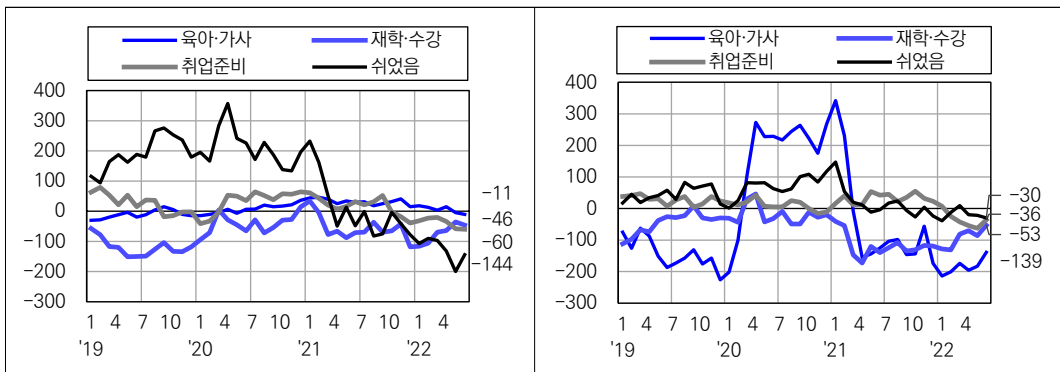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6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5만 6천 명으로 감소폭이 축소(5월 -48만 명)됨.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24만 1천 명으로 주로 쉬었음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여성은 -21만 5천 명으로 쉬었음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그림 6]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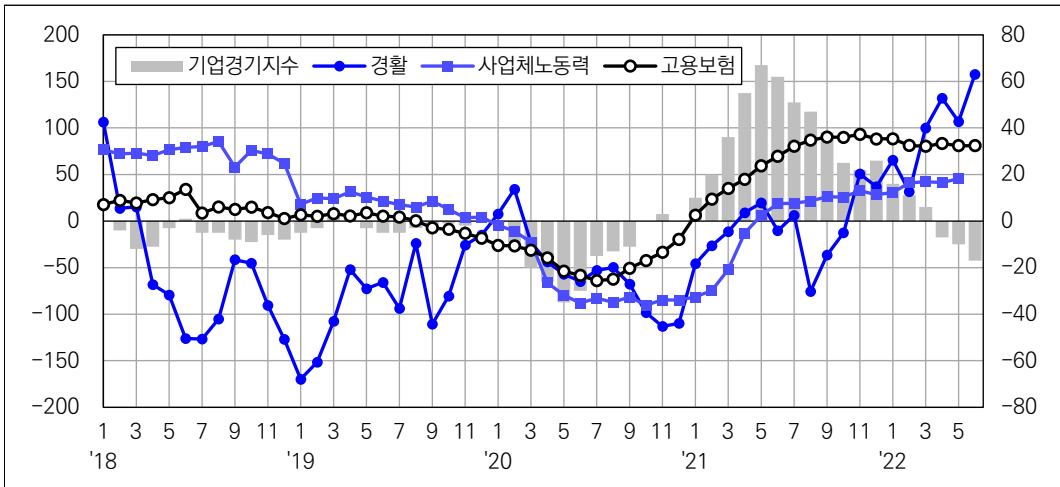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 확대,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축소

○ 2022년 6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15만 8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의 증가세는 이어짐. 피보험자는 전자통신, 1차금속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등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1만 9천 명 증가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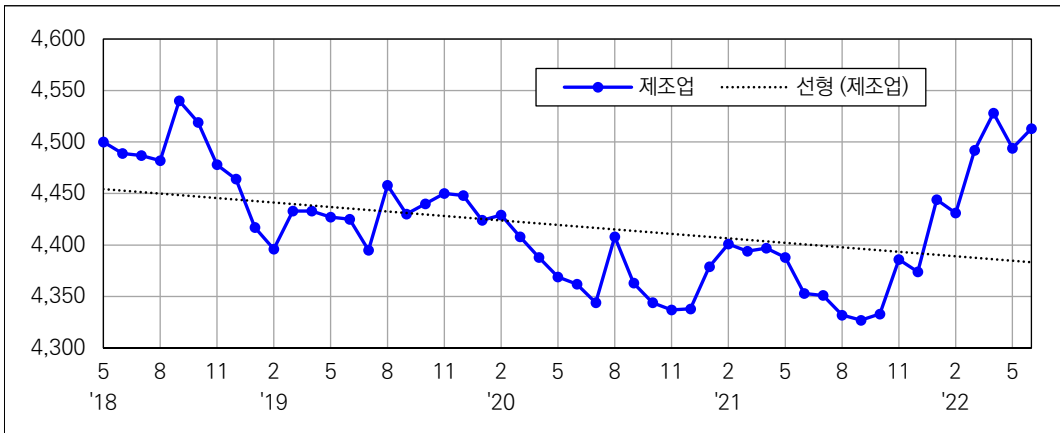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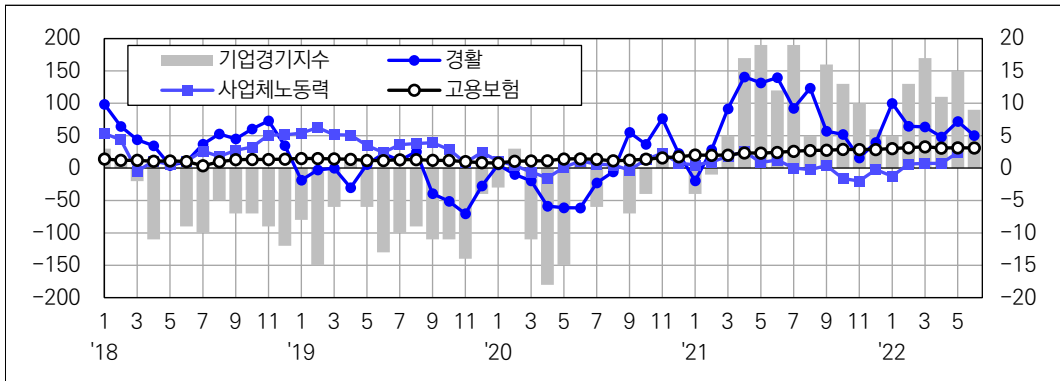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6월 건설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5만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 4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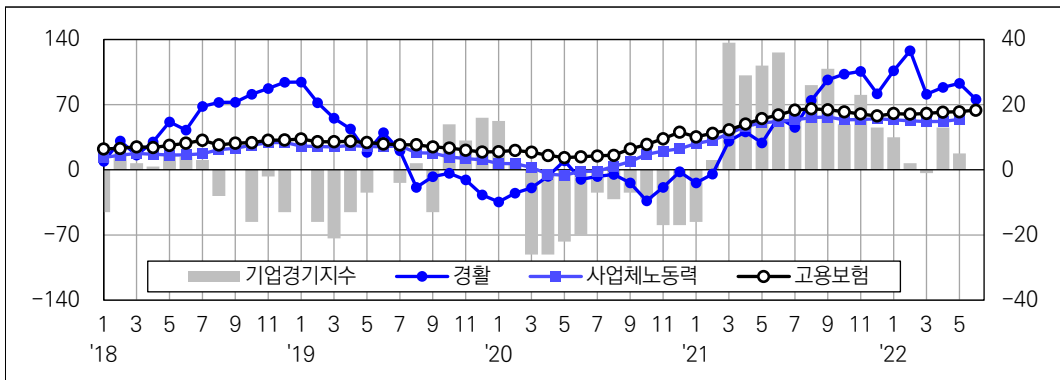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2년 6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53만 8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 (정보통신) 경찰은 증가폭이 축소되는 추세인 반면 기타 고용 지표는 증가세를 유지함.
- (전문과학기술) 모든 고용지표에서 증가폭이 축소되는 추세임.
- (금융보험) 경찰 취업자는 감소폭이 확대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 (공공행정) 경찰 취업자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증가폭이 축소됨.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감소폭이 확대됨.

[그림 10] 정보통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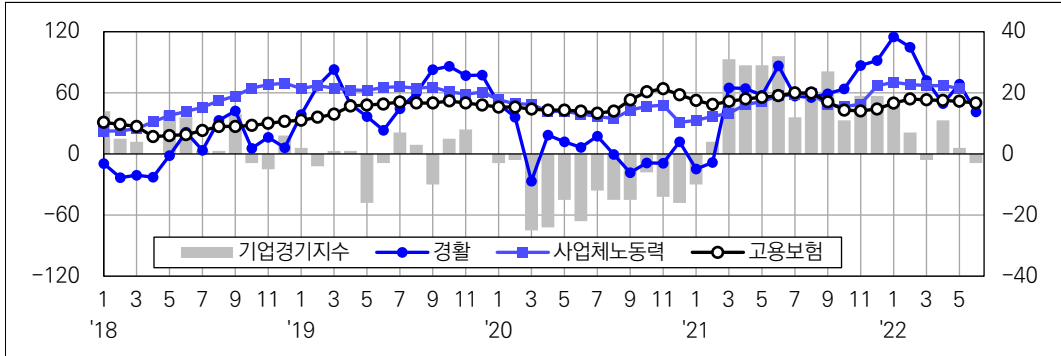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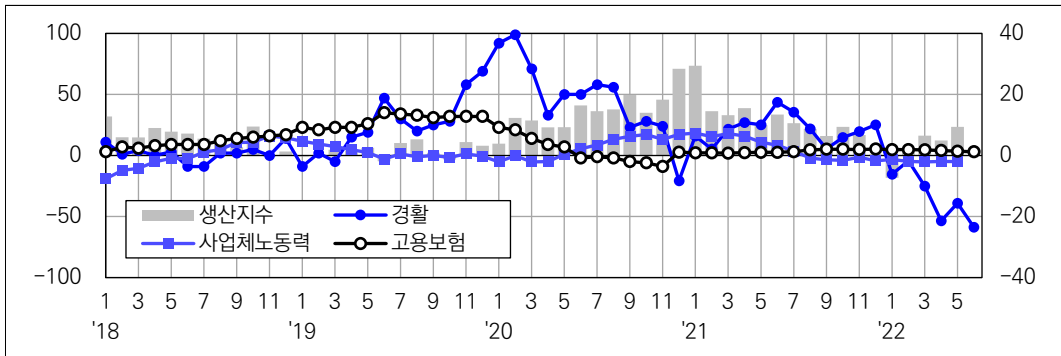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2] 금융 및 보험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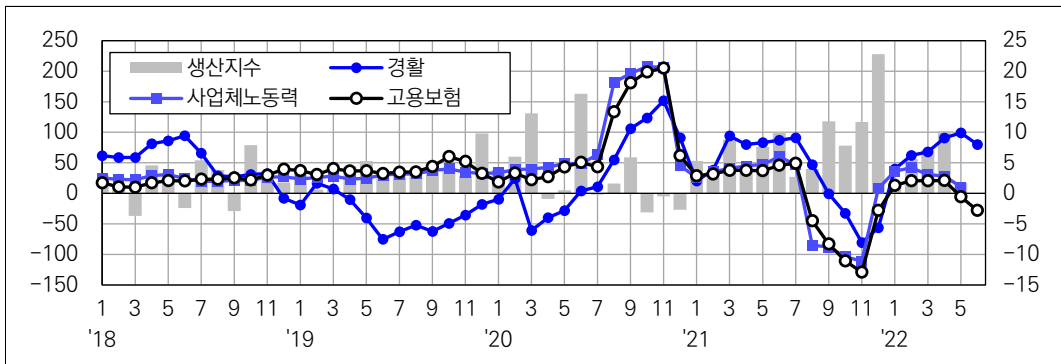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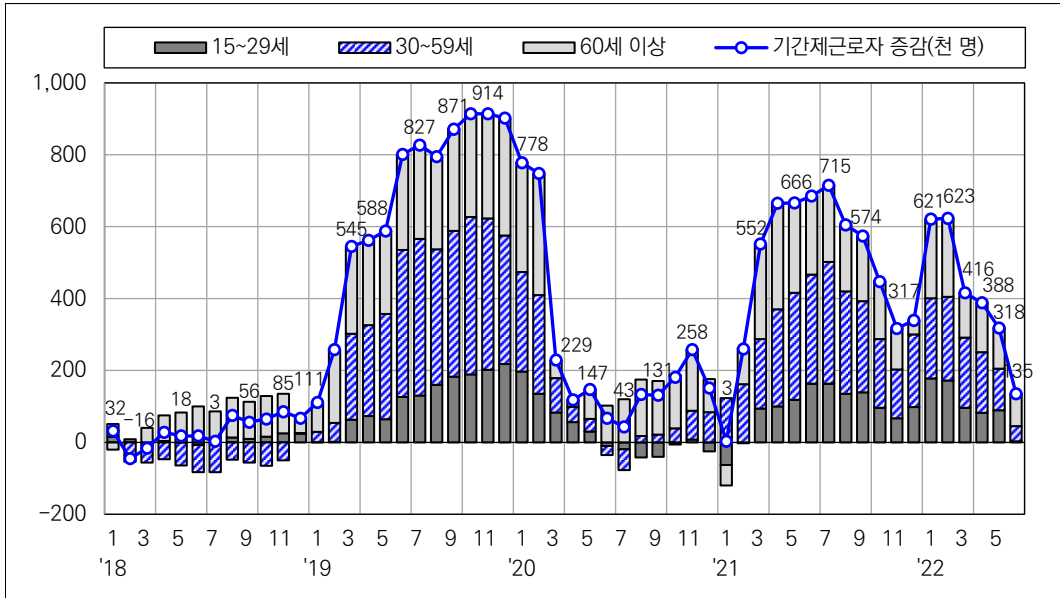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산업생산지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2022년 6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3만 5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기간제는 주로 60세 미만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종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2년 4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 2022년 4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8만 원(2.7%)임.
 - － 2022년 4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77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9% 증가,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76만 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함.
 - － 상용근로자의 임금내역별로 보면 정액급여는 3.8% 증가한 반면 특별급여는 8.4% 감소함.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는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특별급여 지급시기 변경 등의 영향으로 감소함.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2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18	2019	2020	2021	2021		2022		
					1~4월	4월	1~4월	4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376 (5.3)	3,490 (3.4)	3,527 (1.1)	3,689 (4.6)	3,729 (4.1)	3,486 (3.8)	3,957 (6.1)	3,580 (2.7)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592 (5.1)	3,702 (3.1)	3,719 (0.4)	3,893 (4.7)	3,930 (4.2)	3,665 (4.2)	4,185 (6.5)	3,770 (2.9)
	정액급여	2,891 (4.6)	3,010 (4.1)	3,077 (2.2)	3,181 (3.4)	3,155 (2.9)	3,142 (3.4)	3,282 (4.0)	3,263 (3.8)
	초과급여	197 (3.7)	202 (2.7)	200 (-0.9)	208 (3.7)	201 (2.2)	203 (5.2)	212 (5.7)	214 (5.7)
	특별급여	504 (8.5)	490 (-2.8)	441 (-9.9)	504 (14.3)	574 (12.9)	320 (12.2)	690 (20.3)	293 (-8.4)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428 (5.5)	1,517 (6.2)	1,636 (7.8)	1,700 (3.9)	1,677 (4.5)	1,724 (2.6)	1,728 (3.1)	1,764 (2.3)	
소비자물가지수	104.5 (1.5)	105.1 (0.4)	105.7 (0.5)	104.0 (2.5)	102.0 (1.7)	102.0 (2.5)	106.9 (4.0)	106.9 (4.8)	
실질임금증가율	3.7	3.0	0.5	2.0	2.3	1.3	2.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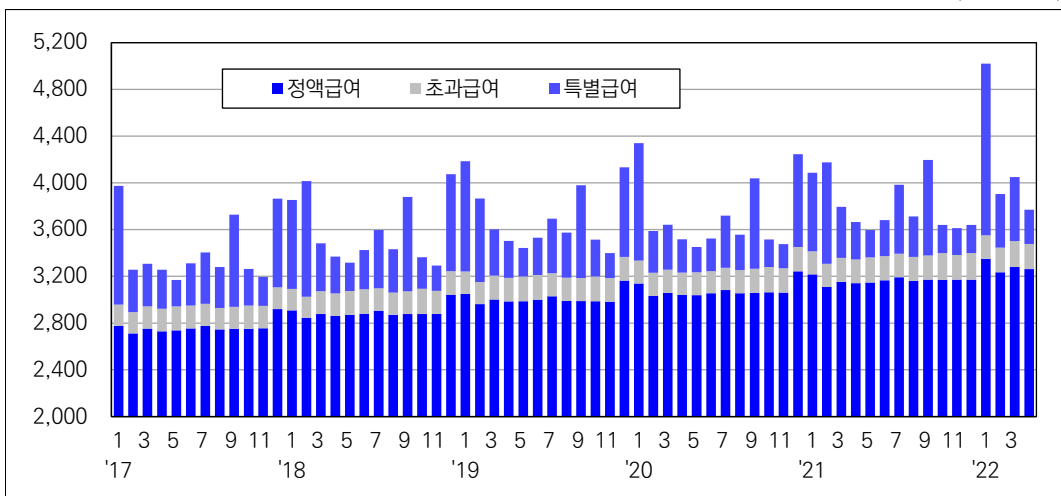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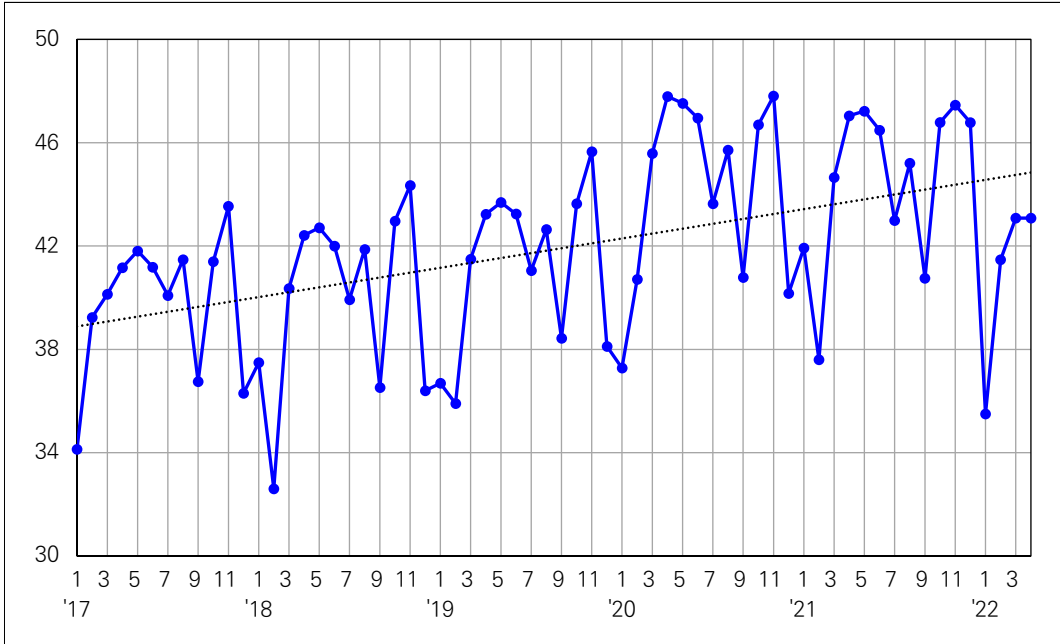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상용직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4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폭 둔화

- 2022년 4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4%, 0.1% 증가함.
 - － 중소기업(1~299인) 사업체·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7%, 0.3% 증가함.
 -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데는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특별급여 지급시기 변경 등에 따른 특별급여의 감소 영향으로 보임.
 -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3%, 0.4% 증가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	2021	2021		2022	
				1~4월	4월	1~4월	4월
중소 규모	소 계	3,193 (1.7)	3,316 (3.8)	3,310 (3.3)	3,186 (3.7)	3,461 (4.6)	3,295 (3.4)
	상용임금총액	3,377 (1.2)	3,510 (3.9)	3,498 (3.5)	3,359 (4.1)	3,668 (4.9)	3,482 (3.7)
	정액급여	2,915 (2.6)	3,012 (3.4)	2,985 (2.9)	2,980 (3.3)	3,103 (3.9)	3,098 (4.0)
	초과급여	171 (-2.4)	176 (2.9)	170 (1.4)	172 (5.1)	180 (5.8)	182 (5.8)
	특별급여	292 (-9.4)	322 (10.4)	343 (9.7)	206 (16.1)	385 (12.5)	201 (-2.6)
	비상용임금총액	1,615 (7.3)	1,671 (3.4)	1,649 (4.3)	1,706 (2.6)	1,690 (2.5)	1,746 (2.3)
대규모	소 계	5,242 (-2.1)	5,582 (6.5)	5,851 (5.4)	5,011 (4.0)	6,460 (10.4)	5,017 (0.1)
	상용임금총액	5,335 (-2.8)	5,687 (6.6)	5,955 (5.4)	5,099 (4.2)	6,598 (10.8)	5,117 (0.3)
	정액급여	3,847 (0.1)	3,973 (3.3)	3,954 (2.2)	3,901 (3.5)	4,120 (4.2)	4,030 (3.3)
	초과급여	340 (1.4)	357 (5.1)	345 (3.0)	348 (5.1)	363 (5.3)	366 (5.2)
	특별급여	1,149 (-12.5)	1,357 (18.1)	1,657 (14.5)	850 (7.4)	2,116 (27.7)	721 (-15.2)
	비상용임금총액	2,029 (18.5)	2,214 (9.1)	2,196 (7.3)	2,051 (1.3)	2,341 (6.6)	2,06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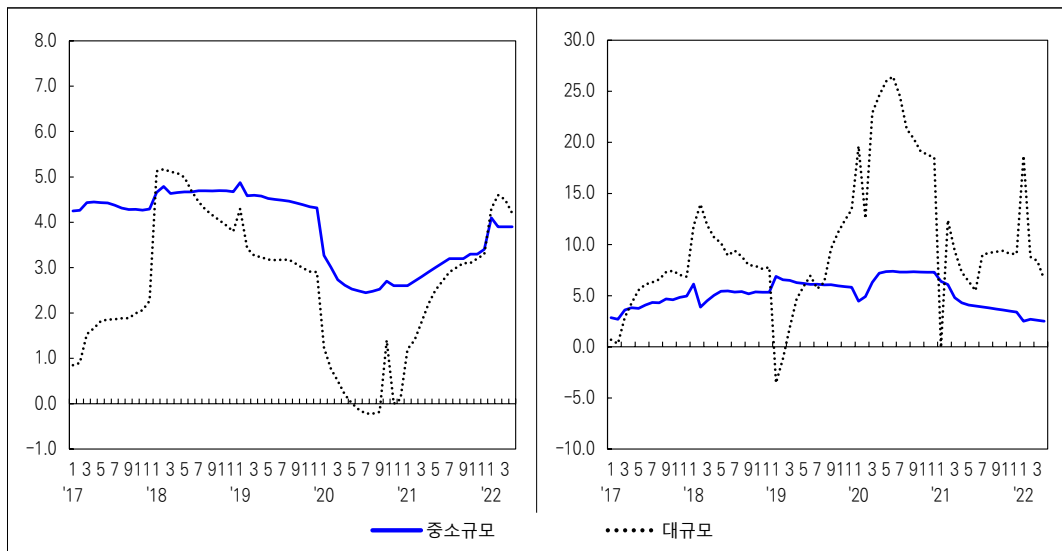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비상용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비상용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4월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4.6%)과
교육서비스업(-0.3%)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2년 4월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광업(7.4%), 부동산업(5.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4.4%), 숙박 및 음식점업(4.4%)이었으며, 제조업은 평균임금상승률을 밀도는 전년동월대비 1.8% 상승에 그침.
- 2022년 4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38만 8천 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57만 2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91만 5천 원) 순으로 임금총액이 높은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195만 1천 원)은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0	2021	2021		2022	
			1~4월	4월	1~4월	4월
전 산업	3,527	3,689 (4.6)	3,729 (4.1)	3,486 (3.8)	3,957 (6.1)	3,580 (2.7)
광업	4,325	4,415 (2.1)	4,311 (2.2)	4,026 (1.7)	4,530 (5.1)	4,325 (7.4)
제조업	3,990	4,239 (6.2)	4,324 (5.5)	3,904 (4.7)	4,702 (8.7)	3,974 (1.8)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33	6,753 (0.3)	6,360 (0.3)	5,339(-5.4)	6,505 (2.3)	5,572 (4.4)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888	4,094 (5.3)	3,981 (5.7)	3,806 (5.0)	4,039 (1.5)	3,830 (0.6)
건설업	3,032	3,106 (2.4)	3,085 (0.5)	3,021 (0.6)	3,214 (4.2)	3,139 (3.9)
도매 및 소매업	3,423	3,551 (3.7)	3,568 (3.3)	3,378 (4.4)	3,766 (5.6)	3,507 (3.8)
운수 및 창고업	3,530	3,795 (7.5)	3,670 (5.2)	3,516 (4.7)	3,889 (6.0)	3,666 (4.3)
숙박 및 음식점업	1,879	1,905 (1.4)	1,888(-0.4)	1,869 (1.3)	1,965 (4.1)	1,951 (4.4)
정보통신업	4,613	4,796 (4.0)	5,068 (5.0)	4,568 (1.4)	5,258 (3.8)	4,756 (4.1)
금융 및 보험업	6,526	6,963 (6.7)	7,657(10.3)	6,698 (7.6)	8,272 (8.0)	6,388(-4.6)
부동산업	2,848	2,954 (3.7)	2,957 (4.5)	2,888 (5.4)	3,171 (7.2)	3,042 (5.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871	5,106 (4.8)	4,995 (2.1)	4,744 (3.9)	5,374 (7.6)	4,915 (3.6)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411	2,492 (3.4)	2,474 (2.9)	2,403 (3.1)	2,576 (4.1)	2,496 (3.9)
교육서비스업	3,366	3,355(-0.3)	3,490(-0.7)	3,236 (1.7)	3,552 (1.8)	3,227(-0.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942	3,014 (2.5)	2,989 (1.6)	2,922 (2.3)	3,111 (4.1)	3,043 (4.1)
여가 관련 서비스업	2,873	2,994 (4.2)	2,983 (3.4)	2,899(10.2)	3,079 (3.2)	2,912 (0.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563	2,700 (5.4)	2,692 (5.9)	2,580 (5.9)	2,828 (5.1)	2,694 (4.4)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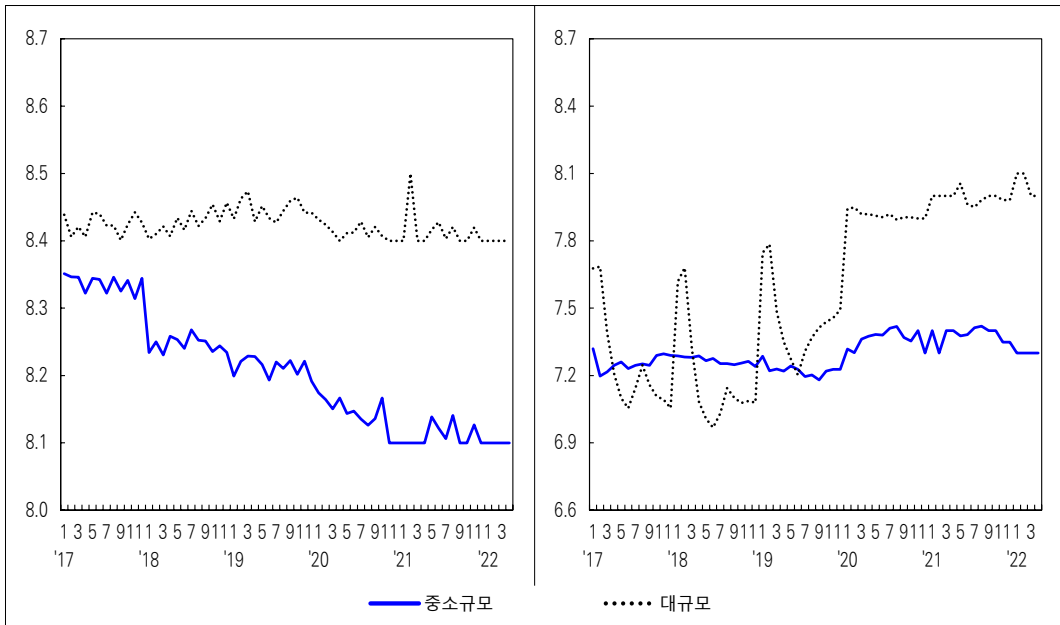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4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2.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7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감소)

- 2022년 4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9.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0시간 감소하였고,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9.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시간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4월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일수가 1일 감소한 영향으로 보임.
 -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임.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월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162.0시간, 164.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6.5시간, 8.0시간 감소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 감소는 제조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데 기인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0	2021	2021		2022	
				1~4월	4월	1~4월	4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1(-1.8)	160.3(0.1)	158.9(-0.3)	168.5(7.9)	155.0(-2.5)	162.0(-3.9)
	상용 총근로시간	167.6(-2.1)	167.8(0.1)	166.0(-0.4)	176.6(8.6)	161.9(-2.5)	169.7(-3.9)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9.8(-1.7)	160.1(0.2)	158.4(-0.3)	168.9(8.9)	154.3(-2.6)	162.1(-4.0)
	상용 초과근로시간	7.8(-9.3)	7.7(-1.3)	7.6(-1.3)	7.6(1.3)	7.6(0.0)	7.6(0.0)
	비상용 근로시간	96.1(0.7)	97.4(1.4)	95.8(1.5)	98.9(1.7)	95.4(-0.4)	97.8(-1.1)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2.8(-0.8)	162.3(-0.3)	162.5(-0.1)	172.0(8.0)	156.6(-3.6)	164.0(-4.7)
	상용 총근로시간	163.9(-1.4)	163.4(-0.3)	163.4(-0.2)	173.2(8.0)	157.7(-3.5)	165.4(-4.5)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3.0(-1.2)	152.3(-0.5)	152.6(-0.1)	162.5(8.6)	146.8(-3.8)	154.6(-4.9)
	상용 초과근로시간	10.9(-4.4)	11.1(1.8)	10.9(0.0)	10.7(0.9)	10.9(0.0)	10.8(0.9)
	비상용 근로시간	125.2(19.4)	127.9(2.2)	128.9(1.7)	130.3(4.9)	122.8(-4.7)	123.2(-5.4)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4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 영향으로 모든 산업에서 감소

- 2022년 4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180.0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78.7시간), 제조업(175.8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7.4시간)임.
- 월평균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한 산업은 광업(-5.9%), 금융 및 보험업(-5.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5.4%) 등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0	2021	2021		2022	
			1~4월	4월	1~4월	4월
전 산업	160.6	160.7(0.1)	159.5(-0.3)	169.0(7.8)	155.2(-2.7)	162.3(-4.0)
광업	181.2	179.9(-0.7)	180.0(0.8)	191.3(7.5)	171.4(-4.8)	180.0(-5.9)
제조업	172.7	173.5(0.5)	173.1(-0.1)	183.9(8.2)	167.7(-3.1)	175.8(-4.4)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3.7	161.6(-1.3)	161.9(-0.8)	176.1(4.3)	156.8(-3.2)	170.7(-3.1)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6.5	176.9(0.2)	175.7(0.7)	184.3(6.5)	171.7(-2.3)	178.7(-3.0)
건설업	136.9	135.9(-0.7)	134.7(-1.9)	141.2(3.7)	131.8(-2.2)	137.4(-2.7)
도매 및 소매업	163.8	163.8(0.0)	162.5(0.0)	172.0(8.0)	159.0(-2.2)	166.4(-3.3)
운수 및 창고업	159.0	160.2(0.8)	158.1(-0.2)	166.2(8.8)	156.3(-1.1)	162.5(-2.2)
숙박 및 음식점업	149.7	148.4(-0.9)	144.8(-2.7)	152.3(5.9)	142.5(-1.6)	148.2(-2.7)
정보통신업	163.8	164.1(0.2)	163.1(-0.1)	174.3(9.6)	158.9(-2.6)	166.8(-4.3)
금융 및 보험업	162.1	161.9(-0.1)	162.2(0.2)	173.2(9.8)	155.6(-4.1)	163.9(-5.4)
부동산업	173.2	171.8(-0.8)	170.6(-0.2)	178.3(6.4)	165.4(-3.0)	171.7(-3.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1.7	161.6(-0.1)	161.3(-0.2)	172.6(9.0)	156.6(-2.9)	165.1(-4.3)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1.7	162.1(0.2)	160.7(-0.3)	169.3(7.5)	156.5(-2.6)	162.0(-4.3)
교육서비스업	136.6	137.2(0.4)	135.6(2.3)	145.7(10.7)	132.2(-2.5)	138.9(-4.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6	158.3(-0.2)	156.4(-0.3)	166.0(7.9)	151.7(-3.0)	158.6(-4.5)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9.7	152.7(2.0)	148.2(0.4)	163.2(14.9)	147.2(-0.7)	154.4(-5.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0.3	162.4(1.3)	160.6(1.8)	170.2(10.7)	157.2(-2.1)	163.9(-3.7)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2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11건
 - － 6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2건)보다 1건 적은 수치임.
- 2022년 6월 조정성립률 33.3%
 - － 6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10%보다 23.3% 높은 수치임.

〈표 1〉 2021년, 2022년 6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2. 6	11	12	3	0	3	6	1	5	0	3	7	33.3%
2021. 6	12	12	1	1	0	9	1	8	0	2	7	1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2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1건
 - － 6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3건)보다 2건 적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0건임.

〈표 2〉 2021년, 2022년 6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2. 6.	1	0	0	0	0	4
2021. 6.	3	0	0	0	0	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2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220건
 - 6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201건)보다 19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9.1%(50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0.9%(122건)를 차지함.

〈표 3〉 2021년, 2022년 6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2. 6.	220	172	42	8	84	7	13	18	515
2021. 6.	201	173	33	12	73	9	33	13	525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2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2건
 - 6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9건)보다 7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60.0%(3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40.0%(2건)를 차지함.

〈표 4〉 2021년, 2022년 6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2. 6	2	5	3	0	2	0	0	0	8
2021. 6	9	6	1	0	3	1	1	0	1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2022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²⁾에 접수된 총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316건
 - 5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401건)보다 85건 적은 수치임.
 - 5월 복수노조사건 처리 건수(교섭요구 공고, 교섭대표 결정,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2) 〈표 5〉의 접수건수는 이월사건이 포함된 건수임.

무)는 전년 동월(269건)보다 41건 적은 수치임.

〈표 5〉 2021년, 2022년 5월 복수노조 관련 사건 처리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계	교섭요구 공고	교섭대표 결정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
2021	787	724	158	247	106	213
2021. 5	401	269	62	83	46	78
2022. 5	316	228	63	56	30	7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매월 『노동위원회 소식지』.

◆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확정

-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시급 9,620원을 표결에 부쳤음. 투표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음.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과 비교하면 5.0%(+460원) 인상된 결과임.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01만 580원으로, 올해보다 9만 6,140원 오른 수준임.
- 노동자위원들은 6월 23일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 890원을, 전날인 28일 7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은 1만 340원을, 이날 회의를 시작할 때 발표한 2차 수정안으로는 1만 90원을 각각 제시했음.
-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에서 현행 최저임금과 같은 동결안을, 1차 수정안은 9,260원을, 2차 수정안은 9,310원을 내놓았음.
- 노사 양측에 구간 안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지만, 노사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공익위원들이 목표치를 제시했음.

◆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출범

- 6월 18일 연맹 돌봄서비스분과 소속 요양서비스노조와 사회서비스원노조가 서울 용산구 학교비정규직노조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조직형태 전환을 가결, 돌봄서비스노조가 출범했음. 돌봄서비스노조 조합원은 약 2,400명임.
- 연맹은 지난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업종산별 건설·강화를 주요 사업으로 결정했음.
- 올해부터는 각 분과를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2~3년 내에 7~8개 주요 업종노조 체계로 완성

한다는 계획임. 이러한 연맹 지침에 따라 지난 3월 요양서비스노조와 사회서비스원노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6월 조직 통합'을 결정했음.

- 돌봄서비스노조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선포 결의대회를 열었음.
- 노조는 결의대회에서 △국공립 요양기관 30% 확충 △사회서비스원 확대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화 등 제도개선 △인력확충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월급제 보장 등 요구안을 발표했다.

◆ 배달플랫폼노조 출범

- 6월 23일 서비스연맹 산하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가 배달플랫폼노조로 전환해 연맹 직할 독자노조로 출범함.
- 독자노조 출범으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은 기업별 분과로 편제되고 서울북부·서울남부·경기·인천 등에 지역지부가 구성되었음.
- 지부 조합원은 약 1,300여 명임. 지부는 지난 1월 배달플랫폼노조(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연맹 직할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서비스일반노조는 배달주문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과 2020년 단체교섭을 통해 플랫폼기업과 첫 단협을 체결했고, 2021년 임금협상을 통해 배달료 산정 기준을 기존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로 변경했음.
- 노조는 라이더유니온과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쿠팡이츠서비스와도 단체교섭을 하고 있음.
- 지부는 독자노조 전환을 통해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플랫폼업체를 넘어 바르고·생각대로·부릉 같은 배달대행업체를 포괄하는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임.

◆ 디아지오코리아 노사, 고용보장·단협승계 합의

- 7월 2일 디아지오코리아에 따르면 단체협약 승계와 고용안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고용안정 방안 마련 등의 내용에 합의했음.
- 2일 교섭 타결로 노사는 기존 단체협약을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에 그대로 승계하기로 했음.
- 두 법인 직원 모두 노동조건 저하 없는 근무를 하게 됐고, 노사는 두 법인 직원 모두에 대한 고용보장을 합의했음. 또한 각 법인에 고용안정위원회를 신설해 노사 간 고용안정에 대해 논의하고 확정기로 했음.
- 아울러 회사는 1인당 1,600만 원의 매각 위로금을 조합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

- 기로 했음. 여기에 더해 직원상호협력기금 5억 5,000만 원을 회사에서 마련하고, 노동조합에서 관리·집행하도록 합의했음.
- 2022년 임금은 7.2% 인상하기로 했음. 앞서 디아지오코리아노조는 2년 연속 임금동결(2020년, 2021년)에 합의했음.
 - 디아지오코리아는 올해 3월 노조와 합의 없이 회사 분할·매각 계획을 발표했음. 현 디아지오코리아를 존속법인(원저글로벌)과 신설법인(디아지오코리아)으로 분할하는 것임. 그 다음 대표 브랜드인 원저를 존속법인에 남겨 매각하고, 나머지 브랜드인 조니워커·기네스 등을 신설법인이 맡는 방식임.
 - 디아지오코리아노조는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원저 브랜드 매각설이 나오던 2월 말부터 매각 반대 투쟁에 돌입했음.

◆ 레미콘 파업 이틀 만에 타결

- 7월 3일 레미콘 운송노동조합과 레미콘 제조사 간의 협상이 타결되었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조는 7월 1일 생존권사수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한 뒤 당일 협상을 소득 없이 마친 후, 휴일인 3일 오후 다시 제조사들과 협상을 이어갔음.
- 양측은 이날 협상에서 레미콘 운송료를 2년간 24.5%(1만 3,700원)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운송 차주 측이 요구한 노조 인정 문제와 간부 대상의 타임오프 수당 지급 요구를 제조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당초 협상이 결렬되었음.
- 레미콘 운송노조가 추가 논의 끝에 명칭에서 ‘노조’를 뺀 ‘수도권운송연대’로 변경하기로 긴급 제안했고, 제조사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음.
- 이날 협상 타결로 현재 수도권 기준 평균 5만 6,000원인 운송 단가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7,700원 올린 6만 3,700원, 내년 7월 1일부터 1년간은 6,000원 올린 평균 6만 9,700원을 적용하기로 했음.

◆ 석탄화력발전 비정규 노동자 10명 중 8명 “고용불안”

- 7월 11일 사회공공연구원과 공공운수노조는 발전 5개사(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탈석탄 정책과 고용에 대한 인식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1.91%)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82.2%의 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하는 발전소의 폐쇄 시기를 정확히 모르거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발전소 폐쇄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17.7%, '대략 듣기는 했지만 정확히는 모른다'는 55.6%, '잘 모른다'는 26.6%였음.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발전소 폐쇄 일정이 이미 확정된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들 중에서도 '폐쇄 시기를 정확히 안다'는 답은 20.6%에 불과했음.
- 응답자들의 79.3%가 '고용이 불안하다'고 답했고, 이 중에서도 56.9%는 '매우 불안하다'고 했음.
- 발전소 운영이 중단될 경우 바로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이들은 거의 없었음. 38.2%가 '재취업이 불가하다'고 했고, 17.6%는 '별도 교육이나 재취업프로그램 후 재취업 가능', 19.5%는 '모르겠다', 22.9%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취업 가능'이라고 응답했음.
- 사회공공연구원과 공공운수노조는 정의당 류호정·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의 협조를 받아 6월 2일부터 30일까지 발전소 폐쇄 시기, 재취업,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정도 등 20개 항목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음.

◆ 현대차, 29년 만에 국내 새 공장

- 7월 11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임금협상 15차 교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를 마련했음.
- 현대차와 기아가 국내에 새 공장을 짓는 것은 1996년 현대차의 아산공장 건설 이후 29년 만임.
- 2000년대 이후로 현대차·기아는 중국, 미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투자에 주력해 왔음.
-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35만 대 정도로 예상되는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2030년 144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임. 이는 두 업체의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 323만 대의 45%에 달하는 물량임. 국내가 여전히 생산의 주요 거점임을 의미한다고 현대차·기아는 강조했다.
- 현대차는 생산·기술직도 국내에서 10여 년 만에 신규 채용함.
- 그동안 노조는 조합원 다수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매년 2,000명 이상 퇴직하는 데 따른 신규 채용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음. 현대차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내년 상반기 중 생산직 신입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음.
- 이번 노사 합의서에는 새로 지어질 공장에 차종을 이관하는 등 물량을 재편성하고 기존 노후 생산라인을 단계적으로 재건축하는 내용도 담겼음. 또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국내 공장 대내외 리스크 대응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분기 1회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 트렌드 등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음.

◆ 대법원 “육아휴직 후 전보다 낮은 직급 인사발령 부당”

- 7월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 A씨에 대한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 쟁점은 롯데쇼핑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음.
- 롯데쇼핑 측은 “발탁매니저는 임시 직책일 뿐이며,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A씨가 육아휴직 전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대법원은 “A씨가 휴직 전 맡았던 매니저 업무와 복귀 후 맡게 된 영업담당 업무는 성격과 내용, 범위 및 권한, 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발탁매니저로 일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대부분 복귀 후에도 발탁매니저 직책을 부여한 점 등에 비추보면 발탁매니저를 임시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음.

◆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내달부터 전국 6곳 시범시행

- 6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월 4일부터 1년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총 6곳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됐음.
- 해당 지역에선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함.
- 정부는 정책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6개 지역을 총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한다는 계획임.
- 모형1의 경우 질병 유형이나 요양 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의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함.
- 대기기간(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지급)은 7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수당을 주고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까지임.
- 모형2 그룹은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이 14일, 최대 보장 기간이 120일로 확대됨. 모형3 그룹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이 지급됨.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 기간 90일임.

◆ 정부, 가사노동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 6월 16일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앞으로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됨.
-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되고, 유급휴일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간 근로제공 시간을 개근한 경우 1회 이상의 주휴일이 부여되며, 연차휴가 역시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제공 시간의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제공됨.
-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이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춰야 함. 정부 인증을 원하는 기관은 6월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